

제19회 군산 콩당보리축제 개막

5월 2일부터 3일간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리밭서... 우리 보리아기 한마당

봄향기 가득한 5월을 여는 제19회 군산콩당보리축제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넓은 보리밭에서 펼쳐진다.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군산원찰쌀보리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보리 이삭을 터트리는데 5월, 싱그러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한 지역축제다. 특히 콩당보리라 불리는 군산 원찰 쌀보리는 지역대표시제 제49호로 등록된 지역 대표 농산물로 축제를 통해 홍보와 소비촉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보리밭에서 콩당콩당해!'라는 주제로 온통 초록으로 물든 축제장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가족과의 추억과 낭만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보리밭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으로 장소도 변경했다. 여기에 더해 군산시는 쾌적한 축제장 조성을 위해 시냇길마다 새만금 짙버리대회에서 활용한 아지메트를 깔았으며, 이를 통해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축제 참가자들은 푸른 웅덩이처럼 펼쳐지는 보리밭 사이길을 걷는 낭만적인 경험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군산시민의 흥과 기쁨을 발산할 수 있는 콩당보리노래

자랑, 어린이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린이 사생대회, 미성동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역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성환씨가 함께 하는 미성동 화합 한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다.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는 원예작물 화분 분양과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군산 수제 맥주 시음회, 군산농업 홍보관 귀농귀촌인이 함께 하는 플라마켓 등이 운영된다. 또한 보리밭에서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느린 콩당엽서 보내기, 보리밭 인생 네컷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준비하였으며, 군산보리로 만든 보리 맥주, 식혜, 보리떡볶이 등 다양한 보리 관련 먹거리를 선보인다. /군산=이재춘 기자

'먹거리사업 고도화' 발판 마련

익산시, 먹거리위원회 개최... 지난해 성과·먹거리 종합계획 공유

익산시가 행정과 시민역량을 집결해 먹거리 사업 고도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25일 익산시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익산시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먹거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종구·정현율)는 지난 2022년도에 출범한 익산시 푸드플랜 민관합치기구이다.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역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익산시 주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영산 전 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2024~2028년)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먹거리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계획과 먹거리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먹거리위원회 워킹그룹 2기' 구성을 위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먹거리위원회 워킹그룹은 익산시 먹거리 종합계획(2025~2029년)과 먹거리위원회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먹거리위원회는 익산시 먹거리 정책

의 주요 성과로 △학교급식 직영 전환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소규모 공동구매학교 26개교에 전 품목 식재료 공급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 조성을 꼽았다. 또한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 도시락 공급을 성공적인 먹거리 복지 정책으로 평가했다. 익산시는 아침밥 사업을 위해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원광보건대학교의 아침밥 공급 방식을 변경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푸드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재단법인 설립,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학교급식 직영까지 단계별 계획에 따른 체계를 구축했다"며 "올해 익산 맞춤형 먹거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고도화해 농업인과 시민이 상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수박놀이축제 용안면서 27~28일 개최

익산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8회 수박놀이축제'가 용안면 용안어울림센터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수박놀이축제는 용안·망성·용동면 농가로 구성된 수박연구회(회장 윤범열)가 주관하며, 생산지에서 행사를 진행해 생산자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모종심기, 화제만들기, 공예체험, 승마체험, 수박비누·향수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박7방, 노래자랑, 수박 빨리 먹기, 수박씨 멀리 날리기 등 이벤트와 축하공연,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신선한 고당도의 수박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수박은 주변 지역보다 이른 4월 말부터 출하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프리미엄급 여객선과 함께하는' 어청도 낭만여행

군산시, 27일~28일 이틀간 전국단위 100여명 참가자 '서해끝 신비의 푸른섬' 어청도 찾아

군산시가 어청도 프리미엄급 여객선 '어청카테리호'와 함께 어청도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군산시 어청도 낭만여행'을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행의 중심지인 어청도는 해발고도 100m대 인위적 산지로 이루어져 산림이 울창하고 1912년 축조된 어청도 등대가 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의 보고이다. 공치산 해변도 지형, 치동묘, 봉수대 등 아름다운 자연이 돋보이는 어청도는 봄철 철새 주요 탐조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이미 어청도 노을은 사진작가들에게 '노을맛집' 명품 출사지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여기에 우럭찜, 우럭죽국, 봉장어구이, 혼합탕수육, 돌



막대튀김, 월계장 등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까지 가득하다. 특히, '군산시 어청도 낭만여행'은 여객선 항로 이용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수부 '햇살빛길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27일~28일 이틀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국단위로 모집한 관광

객, 인플루언서 등 총 100여명으로 1박2일간 어청도의 매력을 다인하게 경험하게 된다. 먼저 2021년 11월 국내최초 알미늄으로 건조된 신조 차도선 어청카테리호 여객선 인라인 쾌적한 여객실, 바다조망, 다양한 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선상노을관광, 선상버스킹, 섬키즈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타는 순간부터 여행의 설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청도 입항 후에는 섬트래킹, 어청도 관광스와 인증이벤트, 마을주민 주관 어청도 맛집·숙소 알리기를 통해 참여자 대상 합의를 추진하며, 어청도 특산물 판매장터, 야간불빛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애인거주시설 '햇살정원' 이전 개소

익산시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이 시설 명칭을 '햇살정원' (원장 박미진)으로 변경하고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율 익산시청과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햇살정원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 신용동 소재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월 이전을 완료했다. 시설은 총 면적 902.9㎡에 4층 규모로 1층은 식당, 2층은 여자 생활실, 3층은 남자 생활실, 4층은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햇살정원 운영법인인 참혜복지재단의 김민진 이사장은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율터리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햇살정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익산시 또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프리미엄 활성화 지원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군산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4월부터 '군산시 프리미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산시 프리미엄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품평동조합, 동국시립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총 13회 가졌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단체이며 1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지원을 통해 프리미엄 운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면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프리미엄 진행에 필요한 집기류 대여, 홍보물 제작, 이벤트 비용이다. 4월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포트홀 즉시 처리반 운영·도로 재포장 추진

최근 폭증하는 도로파손(포트홀) 현상으로 가중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산시는 긴급 도로보수 및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엔 지속적인 강수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은 3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1월부터 군산시는 읍면동 포트

홀 전수조사 및 엠 신고제와 포트홀 즉시 처리반을 상시 운영(연중 24시간)중이다. 신고를 통해 포트홀이 신고되거나 사전 조사에서 발견되면 처리반과 긴급 자재를 투입,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다. 전수조사도 이미 2차례 실시하여 76개 구간 25.3km에 대해선 지난달 도로 재포장공사를 완료했다. 남은 사업대상지 6개 구간 17.2km는 다가올 우기

이전인 5월 말까지 보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수 작업도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아스콘 재포장으로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